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학벌 고찰

-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

權赫建* · 朴惠敏**

(e-mail:kwon6134@hanmail.net* · phm310@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메이지시대의 학벌 탄생 과정
 3. 나쓰메 소세키와 제국대학
 4.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에 미친 학벌
 5. 나쓰메 소세키 문학을 빛낸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들
 - 5.1. 고미야 토요타카
 - 5.2. 모리타 소헤이
 - 5.3. 이와나미 시게오
 6. 결론
-

1. 서론

학벌은 학교를 다닌 경력이 길다든가 고등교육의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같은 학교의 출신자, 또는 같은 학과의 학자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타적 동료 의식으로부터 생긴 인간관계」¹⁾, 또는 「한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서 세력」²⁾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학벌이다.

근대적 교육제도가 정비된 이후 일본과 한국사회에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에 편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개

* 東義大学校 日語日文学科 教授, 日本近現代文学

** 東義大学校 日語日文学科 大学院生, 日本近現代文学

1) 日本国語大辞典編輯委員会編『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第三巻(小学館, 2001) p.457.

2)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근원과 발달』(집문당, 2003) p.20.

인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켜주는 원천」³⁾이 되었다.

그렇지만 남에게 내세워 자랑하기 어려운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관계 없이 불이익과 차별,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학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본 연구와 관련 된 선행연구 두 편을 소개해 보면 권혁건·박혜민은 1906년(明治39) 4월에 발표한 『도련님(坊っちゃん)』의 주인공 아카사쓰의 언행을 작품화시키는 것을 통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로 표기함)는 「제국대학이라는 학벌의 폐해와 불평등, 학벌이 중학교라는 직장 내에서 권력화되어가고 남용되는 모습, 그리고 학벌과 교감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욕망을 챙기는 근대 엘리트 지식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과감하게 부각」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야이 이치로(宮井一郎)는 「소세키가 학력을 너무 중시」⁵⁾했기 때문에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는 소세키를 속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학벌」을 하나의 테마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본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학벌주의가 태동하던 근대시대 초기에 제국대학 영문과 출신이었던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학벌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면 메이지시대의 학벌 탄생 과정, 소세키의 제국대학 재학시절, 소세키의 생애에 미친 학벌, 소세키 문학을 빛낸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 1884-1966)를 비롯한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들의 활동 등을 면밀하게 조명하여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2. 메이지시대의 학벌 탄생 과정

일본에서 조직적인 교육시설이 발달한 것은 에도(江戸) 시대의 일로 번교(藩校), 데라코야(寺子屋) 등이 있었다. 「번교는 각 번(藩)이 부국강병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치한 무사계급의 교육기관이고, 데라코야는 에도시대 서민계층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민교육기관」⁶⁾이었다.

3)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5) p.10.

4) 권혁건·박혜민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에 나타난 학벌의 어두운 그림자 고찰- 「아카사쓰(赤シャツ)」를 중심으로-」 (『한립일본학』 제17집, 2010) p.192.

5) 宮井一郎 『詳伝夏目漱石』上卷(図書刊行会, 1982) p.175.

6) 한영혜 『일본사회개설』 (한울, 2001) p.235.

메이지시대에 들어와 근대적인 학교제도는 1872년(明治5)의 학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인재 육성과 학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1871년(明治4) 문부성(文部省)을 설치하고 1872년에 입신출세, 실학,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일본 최초의 근대적 학교 교육 법규인 학제를 반포했다. 이는 프랑스의 학제를 모방하고 미국의 교육사상을 가미한 것으로 「무사의 특권을 배제하고 사민평등의 이상을 내세우고 있어 징병령과 함께 신정부의 개명적 정책의 핵심」⁷⁾을 이루는 것이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안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밖으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하고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큰 힘을 기울였다. 학제를 반포한 취지는 「학문이 몸을 세우는 데에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마을에 배우지 않는 집이 없고, 집에 배우지 않는 사람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교육의 기회」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메이지 정부가 학제를 제정한 이유는 「국가가 부국강병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문명과 인간의 재예(才藝)가 크게 진장(進長)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명이 문명답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문명화」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이지 정부가 학제를 제정한 진정한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입신을 위한 면도 있지만 우선은 국가의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학제를 반포한 메이지 정부는 전국을 8대학구로 나누고, 각 대학구는 32중학구로, 각 중학구는 210소학구로 나누어 피라미드형 학구(學區) 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는 일본 「전국에 8대학교, 256중학교, 5만 3,760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¹⁰⁾으로 이 학제에 근거하여 많은 초등학교가 건립되었는데, 실제로는 종래의 서민 교육기관인 테라코야나 향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친 예가 많아서 학제 획일주의와의 격차가 컸다. 또 초등학교 건립비용은 지역 주민의 부담이었으며 수업료도 비쌌기 때문에 학교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제국대학(帝國大學)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문부대신이었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제국대학을 「미국의 대학보다 수준이 높고 유럽의 대학에 뒤지지 않는 대학」¹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미국의 대학보다 수준이 높은 제국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메이지 정부는 1868년(明治元年)에 「막부(幕府)의 의학소(醫學所)를 의학교(醫學校)로 삼았고, 가이세이조(開成所)¹²⁾를 가이세이학교(開成學校)」¹³⁾

7)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2001) pp.387-388.

8) 호리오 데루히사 저, 심성보·오종혁 역 『일본의 교육』 (소화, 1997) p.57.

9) 윤종혁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p.36.

10) 앞의 책,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pp.387-388.

11) 앞의 책, 윤종혁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p.33.

12) 양서(洋書)를 번역 연구하고 군사기술을 포함한 서구의 새로운 기술을 연구 도입하던 곳.

13) 湯本豪一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p.394.

로 바꾸어 고등교육제도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후 1877년(明治10) 4월 12일에 도쿄가이세이학교(東京開城學校)와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를 합쳐 일본 최초의 근대적 대학인 도쿄대학(東京大學)을 설립했다. 도쿄대학은 1886년(明治19) 3월 제국대통령에 의하여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으며, 1897년(明治30) 6월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현재의 교토대학)의 설립으로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현재의 도쿄대학)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쿄대학이 제국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있었던 것은 1886년부터 1897년까지 11년간이다.

그러나 당시 도쿄대학·제국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중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외국어 습득을 위하여 고급 수준의 대학예비문(大學豫備門)을 만들었다. 이 대학예비문은 이후 고등중학교로 변화하였다. 때문에 도쿄대학예비문(東京大學予備門)은 제일고등중학교(第一高等中學校)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의 고등중학교는 철저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소수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으며 이 학교에 입학은 곧 엘리트 코스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그러다 보니 고등중학교 입학이 대학입학보다 더 어려운 좁은 관문이 되어 1890년대는 이미 고등중학교 입시 경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¹⁴⁾되었다.

1887년(明治20)에 공포된 문관시험시보 및 견습규칙(文官試驗試補及見習規則)에 따르면 문관(文官)¹⁵⁾이 되기 위해서는 시보 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제국대학 졸업생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고등문관에 임명하는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는 특권제도」¹⁶⁾가 있었다. 원래 고급 관리인 「주임관(奏任官)은 고등시험을 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제국대학 출신에 한하여 그러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¹⁷⁾고 하는 특권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제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메이지정부의 우대정책은 고급관리와 교원임용뿐만 아니라 회사원, 은행원,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혜택을 주었다. 1919년(大正8)의 미쓰이광업(三井鑛業)의 초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제국대학 공과 출신이 50엔, 도쿄고상(東京高商) 출신 40엔, 게이오기주쿠(현재 게이오대학)와 도쿄전문학교(현재 와세다대학) 출신 30엔」¹⁸⁾ 등으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차별되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까지 치르면서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14)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창비, 2009) pp.158-159.

15) 메이지시대의 「文官」이란 고급 관리인 주임관(奏任官)의 총칭.小学館国語辞典編輯部 編 『日本国語大辞典』 「第11卷」(小学館, 2001) p.1117.

16) 溝上憲文 『超·學歷社会』(光文社, 2005) p.64.

17) 竹内洋 『日本近代12.学力貴族の榮光と挫折』(中央公論新社, 1999) p.68.

18) 위의 책, pp.70-71.

위해 노력했던 것은 훌륭한 대학에서 보다 나은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메이지정부가 인정해주는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학벌취득이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다.

3. 나쓰메 소세키와 제국대학

1890년(明治23) 7월 소세키는 제일고등중학교(第一高等中學校:현재의 도쿄대학교양학부) 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9월에 제국대학 문과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소세키가 대학에 재학했던 것은 1890년(明治23)부터 1893년(明治26)까지 4년간이므로 그가 다녔던 대학의 정식명칭은 도쿄제국대학이 아니라 「제국대학」이었다.

소세키가 제국대학에 입학할 당시 영문과에는 유일한 재학생이자 2년 선배인 다치바나 마사키(立花政樹) 한 사람뿐이었다. 다치바나 마사키는 영문과 제1회 입학생이며 소세키는 제2회 입학생으로, 그 전해인 1889년(明治22)에는 입학생이 없었다. 당시 영문과 주임교수는 덕슨(ディクソン:James Main Dixon)이었다.

대학 재학시절 소세키의 학문에 대한 정열은 대단하였다. 필사적으로 공부에 몰두한 결과 그의 대학 성적은 뛰어나게 우수했다. 도쿄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수 덕슨으로부터 영어 실력을 인정받은 소세키는 덕슨 교수의 의뢰로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에 가모노 초메이(鴨長明)가 쓴 수필인 『방장기(方丈記)』를 영어로 번역했다.

친구 마사오카 시키가 제국대학 재학 중에 낙제를 하여 학업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소세키는 1892년(明治25) 7월 25일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 「문학사(文學士) 칭호(稱號)를 취득」¹⁹⁾하라고 권유한다. 소세키가 강력하게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학자금 마련 곤란을 이유로 마사오카 시키는 제국대학 문과대학을 중도에 포기한다. 이를 두고 미야이 이치로는 당시 마사오카 시키는 「소세키가 학력을 너무 중시하는 것을 속물 취급했고, 소세키는 마사오카 시키의 사회적 영예에 민감한 것을 속물 취급」²⁰⁾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소세키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학력을 중시했으며 제국대학을 입학하면 반드시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소세키의 2년 선배인 다치바나 마사키는 1891년(明治24) 7월에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9월 야마구치고등중학교(山口高等中學校) 교수로 임명되었다. 1894년에

19) 夏目金之助 『漱石全集』第22卷(岩波書店,1996) pp.49-50.

20) 앞의 책, 宮井一郎 『詳伝夏目漱石』上巻, pp.175-176.

는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현립 심상중학전습관장(尋常中學傳習館長) 겸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1896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용 도서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1897년 제이고등학교(第二高等學校) 교수로 임명된다. 이후 1900년 35살에 제이고등학교 교수직을 사퇴하고 청국(淸國)의 해관(海關)²¹⁾에 채용되어 상해(上海) 해관에 근무한다. 이후 1914년(大正3)에는 세무사로 승진한 다음, 소세키가 죽고난 이후인 1921년(大正10) 55세에 중국 대련(大連) 해관(海關)의 세관장으로 부임한다. 세관장으로써 활약하던 다치바나 마사키는 1925년(大正14) 60세에 퇴직하고 고향 야나가와(柳川) 구루메(久留米)로 돌아왔다. 이후 1941년(昭和16) 76세의 나이로 도쿄 근교 가마쿠라(鎌倉)에서 사망했다.²²⁾

1893년(明治26) 7월 소세키는 26세에 선배인 다치바나 마사키가 「1891년(明治24) 제국대학 영문과 제1회 졸업생」²³⁾으로 졸업한 이후 영문과를 두 번째로 졸업했으나 그해 졸업생은 소세키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 제국대학은 소수의 학생들만을 입학·졸업시켜, 1886년(明治19)에 제국대학을 졸업한 총 학생 수는 70명이었고, 그 가운데 「문과대학 문학전공을 졸업한 학생은 4명」²⁴⁾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소세키가 영문과를 입학하고 졸업을 할 당시의 제국대학은 수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해도 있었다.

4.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에 미친 학벌

소세키의 생애에 미친 학벌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하면 마쓰야마중학교(松山中學校) 부임 과정과 제오고등학교(第五高等學校)의 교수 부임과정, 2년간의 영국유학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한정된 지면을 고려하여 마쓰야마중학교 부임 과정에 학벌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겠다.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소세키는 1893년 10월 도쿄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후에 東京教育大學이 됨. 현재의 쓰쿠바대학)의 영어 교사로 취직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쿄고등사범학교의 영어교사로 취직을 하여 년 450엔이라는 급료를 받았지만 도쿄제국대학 재학시절에 받은 학비 대여금을 갚고,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나면 소세키의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쿄전문학교

21) 중국에서 해외무역에 대하여 항구에 설치했던 세관.

22) 鈴木 儀一 「立花政樹漢詩集:明治知識人の雅懷」(『駒沢短期大学紀要』13号, 1985) pp.109-110.

23) 앞의 책, 宮井一郎 『詳伝夏目漱石』上卷, p.157.

24) 相賀徹夫 編 『日本大百科全書』16(小学館図, 1987) p.642.

(東京專門學校:현재의 와세다대학)의 강사자리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출강했다.

1895년(明治28) 초에 소세키가 신경쇠약이 악화되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제국대학을 1891년(明治24)에 졸업한 스가 도라오(菅虎雄)는 그에게 잠시 도쿄를 벗어나 지방에서 지내라고 권유했다. 마침 시코쿠(四國) 에히메현(愛媛縣)에 있는 마쓰야마중학교(松山中學校:현재의 松山東高等學校)에서 영어 선생님 한 명을 찾고 있었다.

마쓰야마중학교에서는 교사로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국대학 출신인데다 도쿄고등사범학교의 현직 교사였기 때문에 소세키에게 80엔의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에히메현 지사의 연봉이 3,000엔, 마쓰야마병원장의 월급 120엔에 비교하면 소세키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1900년(明治33)경의 「초등학교 교원의 초임금이 13엔, 경찰의 초임금이 12엔」²⁵⁾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소세키가 당시 공무원과 교사보다 교액의 월급을 받았던 것은 틀림없다.

1895년경 일본의 중학교 「교장, 교감은 50엔」²⁶⁾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마쓰야마중학교에서 교장·교감 선생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파격적으로 소세키를 채용하려고 했던 것은 제국대학 출신인데다 도쿄전문학교 강사와 도쿄고등사범학교의 교사를 한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장선생보다 20엔이나 더 많은 월급 제의를 받고 도쿄에서 부임해 온 소세키는 마쓰야마 지역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제국대학 출신 교액 선생에 대한 관심으로 마쓰야마 지역 신문에도 소세키 채용 과정이 소개되었으며 주민들은 소세키를 「80엔 선생」²⁷⁾으로 불렀다.

5. 나쓰메 소세키 문학을 빛낸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들

소세키가 런던에서 귀국하여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제자들은 문하생이 되길 희망해 그의 자택 소세키산방의 문을 계속 두들겼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차분하게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소세키는 1906(明治39)년 10월 7일 문하생들에게 「목요일 오후 3시를 면회일」²⁸⁾로 한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부터 「목요회

25) 鈴木英雄 『夏目漱石と經濟』(近代文芸社, 1996) p.40.

26) 秦郁彦 『漱石文學のモデルたち』(講談社, 2004) p.83.

27) 長尾剛 『漱石ゴシップ』(文芸春秋, 1993) p.232.

28) 江戸東京博物館·東北大学編 『文豪・夏目漱石-そのころとまなざし』(朝日新聞社, 2007) p.101.

(木曜會)」라 칭해지게 되었다.

목요회의 주된 멤버로는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 고미야 도요타카, 마쓰네 도요조(松根東洋城)를 비롯하여 시라카바파(白樺派)의 무사노코지 사네타쓰(武者小路實篤),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철학자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아베 지로(阿部次郎),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노가미 도요이치로(野上豊一郎), 수필가 우치다 핫켄(内田百閒) 등이 있었다. 만년에는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등도 제자가 되었다. 또한 소세키의 저서의 장정을 담당했던 하시구치 고요(橋口五葉)와 쓰다 세이후(津田青楓) 등의 화가들도 모여, 문학 이야기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미술, 노(能), 요(謠) 등 다양한 화제로 사제 간의 돈독한 시간을 공유했다.

이노우에 아키히사(井上明久)는 소세키와 제자간의 교류는 「일본문학사에 있어 기적의 하나」²⁹⁾라고 논했다. 목요회에 참석했던 소세키 제자들은 뛰어난 인물들로 이후 일본의 문단, 학계, 교육계 등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라 메이지시대 말에서 대정시대, 소화시대에 걸쳐 일본의 문단에서 크게 활약하며, 각 전공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할만한 인물들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나쓰메 소세키를 문호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 세명을 소개해 보겠다.

5.1. 고미야 도요타카

고미야 도요타카는 「스승의 인간상에 후광을 더해」³⁰⁾ 소세키문학을 빛나게 했고, 소세키문학의 연구 폭을 확대시킨 핵심적인 제자였다. 그는 1884(明治17)년 현재의 후쿠오카현 미야코군(京都郡) 미야코초(みやこ町)에서 태어났다.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에 런던에서 소세키와 같은 하숙집에 살았던 사촌형 이누즈카 다케오(犬塚武夫)의 소개로 소세키가 보증인이 되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문하생이 되었다. 이후 「18세기영문학」과 「셰익스피어강독」 등의 강의를 듣고 소세키를 찾아갈 때마다 점점 끌리게 되어 한때 독문학을 그만두고 영문학으로 옮기려는 생각까지 했다.

소세키에게는 많은 문하생들이 있었지만 소세키와 고미야 도요타카와의 관계는 다른 문하생들과는 달리 각별했다. 같은 문하생이었던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는 생전에 스승인 소세키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는 「고미야 도요타카」³¹⁾라고 회상했던 적이 있다.

29) 井上明久 「漱石山房をめぐる人びと」(『東京人』2, 都市出版, 2006) p.35.

30) 中野記偉 「郷土の人・小宮豊隆」(『漱石研究』, 翰林書房, 2000) p.65.

31) 三好行雄 『夏目漱石事典』(学灯社, 1992) p.268.

고미야 도요타카가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문학부 강사가 된 것도 소세키의 추천에 의해서였고, 「아사히문예란(朝日文藝欄)」을 주무대로 한 평론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소세키에게 인정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소세키 사후 1917년(大正6)부터 『소세키전집(漱石全集)』(岩波書店)의 편집에 몰두하여 1919년(大正8)에 전14권을 완결했다. 이 『漱石全集』은 일본에서 개인 문학전집으로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도 수준 높은 전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쿄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한 이후 도호쿠제국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소세키 신사(神社)의 신주(神主)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소세키 연구에 전력을 다한 그는 『소세키의 예술(漱石の芸術)』(岩波書店, 1942)이라는 저서를 간행했다. 이 저서의 서(序)를 읽어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소세키의 「27회 기일(忌日)까지는 『소세키의 예술』이라 제목을 붙인 한 권의 저술을 공개해, 이것을 선생의 무덤 앞에 바치고 싶다」³²⁾고 희망할 정도로 스승 소세키에 대한 경애하는 마음이 대단했다. 『소세키의 예술』이란 저서는 1942년(昭和17) 12월 소세키는 물론 고미야 도요타카와도 관계 깊은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간행하여 자신의 희망을 이루었다. 1954년(昭和29)에는 이와나미서점에서 간행한 『나쓰메 소세키1·2·3(夏目漱石一·二·三)』을 소세키 연구물로 인정받아 「예술원상(藝術院賞)을 수상」³³⁾했다.

이후에도 그의 소세키에의 경애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소세키·도라히코·미에키치(漱石·寅彦·三重吉)』(岩波書店),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세키(知られざる漱石)』(弘文堂) 등의 연구서를 저술해 위의 저서들은 오늘날까지 소세키 문학 연구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5.2. 모리타 소헤이

모리타 소헤이(1881-1949)는 1881년(明治24) 기후현(岐阜縣)에서 태어나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영문과 교수였던 소세키에게 셰익스피어 등을 배웠다. 1906년(明治39)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고향에 있던 모리타 소헤이는 소세키의 『런던탑(倫敦塔)』과 『풀베개(草枕)』를 읽고 감동을 받아 문학에 뜻을 품었다. 이후 소세키의 조언에 힘입어 작품 『매연(煤煙)』을 집필했다.

하지만 그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라 경쾌함을 지닌 마쓰네 도요조나, 나이가 하나 아래지만 영문과 동급생인 스즈키 미에키치에게 주눅이 들어 소세키 앞에서는 「만족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 불가능」³⁴⁾ 했다. 목요회의 다른 멤버들과는

32) 小宮豊隆 『漱石の芸術』(岩波書店, 1942) p.iii.

33) 日本近代文学館, 小田切進 編 『日本近代文学大事典』 「第二卷」(講談社, 1997) p.54.

34) 関川夏央 「森田草平-漱石を刺激するという「役割」-」(『漱石研究』, 翰林書房, 2000) p.75.

잘 어울리지 못한 모리타 소헤이였지만 그를 총애한 소세키는 파격적으로 그의 작품 『매연』(1909년)을 「도쿄아사히신문」에 연재시켜 출세작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

이후 고미야 도요타카와 함께 「아사히신문」 문예란을 담당하여 스승인 소세키를 도와 자연주의에 대항하기도 했다. 1942년(昭和17)에 甲鳥書林에서 간행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서문에 자신은 소세키의 「영원한 제자」³⁵⁾라고 밝혔다. 이후 『문장도와 소세키 선생(文章道と漱石先生)』(春陽堂), 『속 나쓰메 소세키(續夏目漱石)』(甲鳥書林), 『소세키 문학(漱石の文學)』(東亞出版社), 『소세키 선생과 나(漱石先生と私)』(東西出版社) 등의 저서 발간을 통해 소세키에 대한 경애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가 간행한 일련의 저작물은 소세키 연구의 기본문헌으로서 불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3. 이와나미 시게오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 1881-1946)는 소세키 및 그의 문하생들과 연고 깊은 당시 이와나미출판(岩波書店)을 창업한 사장이다. 1881년(明治14) 나가노현(長野縣)의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몸이 약한 아버지가 그의 나이 15세에 병으로 사망했다. 갑자기 호주가 된 그는 어머니를 도와 농업에 종사했지만 1899년에 도쿄로 올라와 일본중학(日本中學)에 입학했다.

이후 제일고등학교 입학하여 아베 요시시게와 아베 지로와 사귀었다. 1908년(明治41) 도쿄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1913년(大正2)년에 고서점을 간다(神田) 진보초(神保町)에 열어」³⁶⁾ 파격적으로 정찰 판매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출판업이었다.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과 훌륭한 저자에게 글을 받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쿄제국대학 시절 소세키의 제자였던 관계를 활용하여 가끔씩 소세키를 찾아갈 때마다 선생의 저서를 출판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제자의 부탁을 들은 소세키는 저서 출판을 승낙했고, 이와나미 시게오는 기세 좋게 그러면 하시는 김에 「꼭 출판할 비용을 빌려 주십시오」³⁷⁾라고 부탁했다. 이런 연유에 의해 소세키의 소설 가운데서도 걸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음(こころ)』이 1914년(大正3) 9월에 이와나미서점에서 소세키의 자비로 출판되었다.

이때 간행한 『마음』의 장정은 소세키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후에 이와나미출판의 『漱石全集』의 장정도 거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다. 게다가 이와나미 시게오의 부탁에 의해 소세키는 자신이 붓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

35) 高橋洋二編 『日本のこころ32夏目漱石』(平凡社, 1994) p.96.

36) 위의 책, p.96.

37) 吉田精一 「解説、夏目漱石の人と作品」(『こころ』, ポプラ社, 1988) pp.292-293.

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붙잡을 만한 이 책을 추천한다」³⁸⁾ 라는 광고문을 만들어 제자 이와나미 시게오의 출판 영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당시 소세키의 작품은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좋아 전속(專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만한 큰 출판사가 있었다. 하지만 제자를 위해 고심의 역작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소세키의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나미 시게오는 『마음』을 출판한 인연을 시작으로 소세키 사후인 1917년(大正6)부터 아베 요시시게 등과 『漱石全集』을 간행했다. 순조롭게 출판계에 지반을 굳힌 이와나미서점은 소세키문학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다. 일본의 일반 가정의 책장에도 소세키 작품은 많이 꽂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빨간색 표지에 알기 어려운 한자로 디자인된 『漱石全集』의 계속된 출판은 그동안 소세키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소세키 연구를 「일반 연구자들에게까지 확산」³⁹⁾시키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와나미 시게오·고미야 도요타카 등 도쿄제국대학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간행한 『漱石全集』은 소세키 문학에 일반연구자들이 쉽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를 국민작가, 일본을 대표하는 문호로 만드는데 주춧돌같은 역할을 했다.

6. 결론

본자가 이제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일고등중학교를 거쳐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소세키는 일본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원조 학력엘리트 출신이다. 어린 시절 수양아들과 양자로 보내지는 유복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어떻게든 제국대학을 졸업해야만 한다는 학력중시 경향을 보였다. 그가 대학 졸업 후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국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제국대학 재학시절에 친하게 지낸 스가 도라오의 추천에 의해 시코쿠에 있는 마쓰야마중학교에 교사로 부임한다. 마쓰야마중학교에 교사로 갔을 때 교장선생이 받았던 월급 60엔보다 20엔이 더 많은 80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세키가 실력도 있었지만 메이지정부가 인정하고 있었던 제국대학 출신이라

38) 위의 책, p.293.

39) 오준영 「일본에서의 『산시로(三四郎)』 연구경향과 성과 조명」(『나쓰메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2005) p.57.

는 신분 징표와 학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소세키가 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직, 작품발표, 소세키 문학전집 출판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제국대학 재학시절 친구들과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들이었다. 특히 고미야 도요타카, 모리타 소헤이, 이와나미 시게오 등 도쿄제국대학에서 소세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목요회 출신 문학생들은 소세키 사후(死後)에도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소세키산방에 모여 『漱石全集』을 비롯한 일련의 소세키 문학 관련 저작물 간행을 통해, 그를 국민작가,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문호로 추앙받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문학사를 살펴보면 개성이 강한 문학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문단 풍토에서 도쿄제국대학 출신 제자들과 소세키의 끈끈한 문학적 교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소세키가 국민작가·문호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의 문학이 훌륭했던 점도 있지만 사후 도쿄제국대학 출신 엘리트 문학생들의 헌신적인 저술출판에 의해 그의 문학연구가 일반 연구자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부터이다. 또한 소세키가 사후에도 제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생전에 학벌을 중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고, 제국대학 출신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고 가족이상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소세키 문학의 광맥을 후세에 전승할 수 있게 된 것 가운데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가 훌륭한 문학 작품을 창조하여 간행해 낸 것이다. 이후 그의 제자들인 고미야 도요타카 등 도쿄제국대학 출신을 주축으로 한 학벌의 힘에 의해 소세키문학의 토대가 구축되어 미화·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근대문학 작가 가운데 소세키만큼 제국대학이라는 학벌의 혜택을 입은 작가는 없다고 생각되며, 학벌이 그를 국민작가, 문호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혁건·박혜민(2010)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에 나타난 학벌의 어두운 그림자 고찰-「아카샤쓰(赤シャツ)」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17집. p.192
- 김동훈(2005)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p.10
- 박경희(2001)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pp.387-389
-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근원과 발달』, 집문당. p.20

- 오준영(2005) 「일본에서의 『산시로(三四郎)』 연구경향과 성과 조명」, 『나쓰메 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p.57
- 윤종혁(2008)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pp.33-36.
- 한영혜(2001) 『일본사회개설』, 한울, p.235.
- 함동주(2009)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pp.158-159.
- 호리오 데루히사 저, 심성보·오종혁 역(1997) 『일본의 교육』, 소화, p.57.
- 井上明久(2006) 「漱石山房をめぐる人びと」, 『東京人』 2, 都市出版. p.35
- 江戸東京博物館·東北大学編(2007) 『文豪・夏目漱石-そのころとまなざし』, 朝日新聞社. p.101
- 小宮豊隆(1942) 『漱石の芸術』, 岩波書店, p.iii
- 高橋洋二編(1994) 『日本のこころ32夏目漱石』, 平凡社, p.96
-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 編(2001) 『日本国語大辞典』 「第11巻」, 小学館. p.1117
- 鈴木儀一(1985) 「立花政樹漢詩集 : 明治知識人の雅懐」, 『駒沢短期大学紀要』 13号, pp.109-110
- 鈴木英雄(1996) 『夏目漱石と経済』, 近代文芸社. p.40
- 関川夏央(2000) 「森田草平-漱石を刺激するという「役割」-」, 『漱石研究』, 翰林書房, p.75.
- 相賀徹夫 編(1987) 『日本大百科全書』 16, 小学館. p.642
- 竹内洋(1999) 『日本近代12.学力貴族の栄光と挫折』, 中央公論新社. pp.68-71.
- 夏目金之助(1996) 『漱石全集』 第22巻, 岩波書店, pp.49-50.
- 中野記偉(2000) 「郷土の人・小宮豊隆」, 『漱石研究』, 翰林書房, p.65.
- 長尾剛(1993) 『漱石ゴシップ』, 文芸春秋. p.232
- 日本近代文学館, 小田切進 編(1997) 『日本近代文学大事典』 「第二巻」, 講談社. p.54
- 日本国語大辞典編輯委員会編(2001)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三巻, 小学館. p.457
- 秦郁彦(2004) 『漱石文学のモデルたち』, 講談社. p.83
- 溝上憲文(2005) 『超·学歴社会』, 光文社. p.64.
- 宮井一郎(1982) 『詳伝夏目漱石』 上巻, 図書刊行会. pp.157-176
- 三好行雄(1992) 『夏目漱石事典』, 学灯社. p.268
- 湯本豪一(2004)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p.394.
- 吉田精一(1988) 「解説、夏目漱石の人と作品」 (『こころ』, ポプラ社) pp.292-293

要 旨

論者が学閥主義が胎動した近代時代初期に帝国大学英文科出身だった漱石の生涯と文学に学閥がどん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に対して分析したものを要約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漱石は第一高等中学校を経て帝国大学英文科を卒業という日本社会では正統エリートコースを踏んだ元祖学歴エリート出身だ。子供時代に里子や養子に出されて決して裕福ではない家庭環境で育った彼は、大学在学中から何としても帝国大学を卒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学歴重視傾向を見せた。彼が大学卒業後に東京高等師範学校の教師になったのも帝国大学卒業者という学閥が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松山中学校に教師として赴任した際、校長の月給60円より20円多い80円の月給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彼に実力があったこともあるが、明治政府が認定した帝国大学出身という身分徴表と学閥があったがゆえに可能だったのである。

第二に、小宮豊隆、森田草平、岩波茂雄ら、東京帝国大学で漱石に教えをうけた木曜会出身の門下生達は、死後も東京新宿区にある漱石山房に集まり、『漱石全集』を始めとした一連の漱石文学関連著作物を発表して、彼を国民作家、日本文学を代表する文豪として推仰を受けるまでにする土台を作った。漱石が国民作家・文豪と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彼の文学が素晴らしいという点もあるが、死後、東京帝国大学出身のエリート門下生らによる献身的な著述出版によって、彼の文学研究が一般研究者にまで広がったためである。

第三に、漱石文学の脈脈を後世に伝承することのできた重要な一因は、すぐれた文学作品を創造し、刊行したことだ。以後、彼の弟子である東京帝国大学出身者らを主軸とした学閥の力によって漱石文学の土台が構築され、美化・拡散する過程を経たのである。そうであるなら日本近代文学作家の中で漱石ほど帝国大学という学閥の恵沢を受けた作家はおらず、学閥が彼を国民作家、文豪に押し上げるのに寄与したのだ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学閥, 帝国大学, 学歴重視, 松山中学校, 木曜会, 漱石山房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